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의 대(對)아세안 문화전략*

— 접경성·민족성·해양성의 실천과 과제

권기영**

목 차

1. 서론
2. 광서의 대아세안 문화전략 : 조건과 접근 방식
 - 1) 광서 문화전략의 추진 기반과 조건
 - 2) 광서 문화전략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접근 범주
3. 접경성과 민족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전략의 실천과 과제
 - 1) 접경지역 기반 문화전략의 형성과 운영 방식
 - 2) 민족문화의 전략적 활용과 제도화 시도
4. 해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전략의 실천과 과제
 - 1) 광서 해양문화 전략의 형성과 대아세안 교류 기반
 - 2) 광서 해양문화 전략의 실행 방식과 과제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 광서장족자치구가 추진해 온 대(對)아세안 문화전략을 ‘접경성’, ‘민족성’, ‘해양성’이라는 세 가지 실천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광서는 아세안과 육상과 해상으로 모두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문화적 배경을 갖춘 지역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실제로 구현되는 대표적 공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성이 문화전략의 실천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광서가 중앙정부의 외교 전략을 어떻게 지역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 연구는 인천대학교 2024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접경지역에서는 공연예술, 전통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이 운영되었으며, 민족성 전략에서는 전통축제와 상징 인물을 활용한 콘텐츠가 문화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해양성 전략은 복해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결합하여 아세안과의 문화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대체로 베트남 등 일부 지역과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세안 측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행사 중심의 단기 운영, 문화 서사의 편향성과 같은 구조적 제약도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은 광서의 문화전략이 지속가능하며 상호 교류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전략 재구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문화외교 전략 역시 지역 특성과 실제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광서장족자치구, 아세안, 문화전략, 접경성, 민족성, 해양성

1. 서론

중국과 아세안(ASEAN)은 1990년대 초 정식 대화 관계를 수립한 이래, 협력의 폭과 깊이를 빠르게 확장해 왔다. 초기에는 무역과 투자 중심의 경제 협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교육, 언론, 문화 등 인문 영역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되었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 남부와 육상 및 해상 경로를 공유하는 지정학적 인접 지역으로서 전략적 위상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0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戰略夥伴關係)’를 체결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이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全面戰略夥伴關係)’로 격상시키며 관계를 심화시켰다. 또한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中國-東盟自由貿易區, CAFTA)의 출범과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區域全面經濟夥伴協定, RCEP)의 발효는 양측 간 제도적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¹⁾

1) 雷小華, 「中國-東盟建立對話關係30年: 發展成就、歷史經驗及前景展望」, 『亞太安全與海洋研究』2022年 第1期, 21-23쪽.

이러한 제도화 흐름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 전략 구도 속에서 아세안은 육상실크로드(絲綢之路經濟帶)와 해상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가 교차하는 핵심 지대로 부상하였고, 경제적 연계를 넘어 문화적 연계까지 포함하는 협력의 장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심상통(民心相通)’은 문화 및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대외 협력의 핵심 가치로 부각되었고, 중국 외교 전략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칙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이하 광서라 칭함)²⁾는 이러한 문화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서는 북부만(北部灣)을 통해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항만들과 연결되며, 장족을 비롯한 다수의 소수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복합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언어, 생활방식, 전통문화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여러 국가와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며, 역사적으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온 교류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따라서 광서는 단순한 국경지대를 넘어 실질적인 문화 연계가 이루어지는 전략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광서를 중국-아세안 협력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녕(南寧)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국-아세안 박람회(中國-東盟博覽會)’이다. 이 박람회는 광서가 단순한 통과 지대가 아니라 중국의 문화전략이 실제로 실행되는 주요 현장임을 잘 보여준다.³⁾ 그러나 광서는 중앙정부의 전략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접경 지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의 전략 기조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지역적 맥락에 맞는 실천 방식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

2)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장족’은 壯族(Zhuàngzú)을 지칭하며, 티베트계 민족인 藏族(Zàngzú)과는 구별된다.

3) 嚴薇·高欣, 「命運共同體背景下中國-東盟博覽會創新發展研究」, 『知識經濟』2019年 第24期, 18-1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서의 문화전략이 일정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중앙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려는 압력이 현장에 작용하면서 문화 행사 내용이 표준화되거나 다양성이 저해되는 양상이 보이기도 하며, 접경성이나 민족성과 같은 지역 고유의 특성이 정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민족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역시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지 중심의 표상이나 일방적 메시지 전달로 흐르는 경향도 드러난다.⁴⁾ 이는 중국-아세안 간 문화 이해의 심화와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광서의 대아세안 문화전략을 단순한 교류 성과의 확대가 아니라, 그것이 작동하는 구조와 실천의 방식에서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과 현실 조건이 문화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어떤 제약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중국의 대외문화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그 효과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 아래, 광서의 문화전략을 ‘접경성’, ‘민족성’, ‘해양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 범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범주는 단지 지역의 특성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각 요소가 문화전략의 실천 과정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받고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는 하나의 틀로 작동한다. ‘접경성’은 국경 지역 문화제와 교류 플랫폼의 운영 구조를 통해, ‘민족성’은 장족 문화를 포함한 소수민족 문화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해양성’은 북부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 협력의 실천 양상을 통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광서가 지역 고유의 조건을 어떻게 문화전략의 자원으로 전환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도적 구조와 현실적 제약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외교 전략과 지역의 문화 실천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광서의 사례가 향후 중국과 아세안 간 지속가능한 문화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교훈과 의미를 줄

4) 金美蘭·王海迪, 「‘一帶一路’背景下中國文化在東盟國家的傳播路徑」, 『中國民族教育』 2023年 第3期, 34-35쪽.

수 있는지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2. 광서의 대아세안 문화전략 : 조건과 접근 방식

1) 광서 문화전략의 추진 기반과 조건

광서의 대아세안 문화전략은 지정학적, 문화적, 제도적 조건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기반 위에서 형성되어 왔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광서의 지정학적 위상에 있다. 광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육상과 해상을 통해 아세안과 동시에 연결되는 지역으로 복합적 교류가 가능한 전략적 거점에 자리하고 있다. 육상으로는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해상으로는 북부만(北部灣)을 통해 하이퐁(Hải Phòng), 하롱(Hà Long) 등 북베트남의 항만도시들과의 교역이 활발하다. 이러한 이중적 연결 구조는 광서를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서북 기점이자 중국 내륙과 아세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 협력의 복합 거점으로 위치시킨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을 토대로 광서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에서 꾸준히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서부대개발 14차 5개년 계획 실시 방안>(2021)은 광서를 중국 서남 내륙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설정하고, 아세안과의 복합 교류를 추진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부만 지역의 개방 확대, 자유무역지대 조성, 국제 물류 통로 확충 등의 정책은 경제 협력을 넘어 문화, 교육, 생태 분야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⁵⁾

광서가 보유한 문화적 유사성과 민족 간 정서적 유대는 문화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한다. 전체 인구의 약 37%가 장족(壯族), 묘족(苗族), 동족(侗

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西部大開發“十四五”實施方案』, 2021.

族), 요족(瑤族) 등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광서는 중국 내 대표적인 다민족 지역이며,⁶⁾ 이들 민족문화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국가의 전통문화와 계통적·생활문화적 유사성을 광범위하게 공유한다. 예컨대 장족 최대 명절인 ‘삼월삼(三月三)’은 라오스의 핼마이(Pi Mai), 태국의 송끄란(Songkran)과 유사하게 계절의 전환, 공동체 통합, 조상 숭배를 상징하며 정서적 교감의 기반을 형성한다.⁷⁾ 이와 같은 문화적 친연성은 광서의 민족문화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대외문화 전략에서 실질적인 소통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광서의 도시 구조는 이러한 전략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행정 중심지인 남녕은 ‘중국-아세안 박람회’와 인문 교류 플랫폼을 통해 정책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해(北海)는 해양문화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해양 지향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흠주(欽州)는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방성항(防城港)은 접경지역 민족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⁸⁾ 이처럼 도시별 기능이 분화된 다층적 협력 구조는 단일 거점 중심의 전략을 넘어서 접경성과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문화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조는 광서가 중앙정부의 외교 전략에 부응하면서도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자율적 문화전략을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도시 간 기능 분화는 전략 실행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이며, 해양문화, 생태, 산업이 융합된 협력 모델은 광서를 단순한 문화 전달 통로에서 문화외교의 실천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북부

6) 雷小華, 「中國-東盟建立對話關係30年: 發展成就、歷史經驗及前景展望」, 『亞太安全與海洋研究』2022年 第1期, 28-29쪽.

7) 金美蘭·黃啓新·雋雨仙, 「東盟旅遊者旅華驅動因素研究——以廣西爲例」, 『廣西社會科學』2023年 第4期, 56-57쪽.

8) 隋譯萱·楊芹芹, 「廣西-東盟經濟關係的現狀、問題與對策研究」, 『中國市場』2024年 第27期, 참고.

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생태관광, 해양문화유산 보존 등의 활동은 문화산업, 지역경제, 생태보전이 상호 연계되는 통합형 협력 모델로 주목된다.

광서의 접경성과 다문화성은 외교 중심의 제도적 교류만이 아니라 정서적 공감과 생활 기반의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는 문화적 유사성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청년 교류, 예술 협업, 지역 공동 행사 등은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 경로로 작용한다. 이처럼 광서는 지정학적 조건, 민족문화 자산, 도시 협력 구조라는 복합적 요소를 바탕으로, 중앙의 전략 기획과 지역의 실천 역량이 교차하는 문화전략의 실험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2) 광서 문화전략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접근 범주

광서의 대아세안 문화전략은 단일한 문화정책이나 일회성 교류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지정학적 위상, 인문지리적 특성, 민족문화의 분포, 해양 연결망 등 다양한 조건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문화 협력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본 논문은 광서 문화전략의 형성과 실천이 교차하는 다층적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 접경성, 민족성, 해양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세 범주는 단순한 개념 구분이 아니라, 문화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작동하며, 감정적 공감과 네트워크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틀로 기능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문화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을 실천해 나가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접경성은 광서의 문화전략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국경 협력 구조가 어떻게 전략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분석 지점이다. 광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아세안과 육상 및 해상을 동시에 접하는 자치구이며, 베트남과 인접한 방

성향, 동흥(東興), 흙주 등은 일상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접경 공간이다. 남녕은 고위급 포럼과 박람회를 통해 중앙-지방 연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성향은 청년 교류나 공동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접경 협력의 장으로 작동하고 있다.⁹⁾ 동흥 지역에서는 변경시장 문화제, 합동 공연 등 일상적 교류가 정례화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화된 외교 틀과는 다른 지역 주도의 자율적 실천 방식으로 주목받는다.¹⁰⁾ 이처럼 접경성은 문화전략이 추상적인 기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 조건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 틀로 작용한다.¹¹⁾

민족성은 광서 문화전략의 가장 뚜렷하고 안정적인 문화적 기반이다. 광서는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밀집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다민족 지역으로, 이들의 전통문화는 아세안의 타이계 민족과 언어, 의례, 음악, 복식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친연성은 단순한 전통의 공유를 넘어 정서적 공감과 공동체적 수용성을 가능하게 하며, 문화 협력의 감정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토대로 광서는 2015년 이후 ‘중국-아세안 민족문화포럼(中國-東盟民族文化論壇)’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민속공예 교류, 민족예술단 파견,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민족성은 정체성의 유사성에서 출발해 문화전략의 감정적 접속을 실현하는 매개이자, 제도화된 외교 전략을 보완하는 실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양성은 광서 문화전략이 내륙의 경계를 넘어 해양으로 외연을 확장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북부만을 통해 베트남과 접하고 있는 광서는 북해, 흙주,

9) 广西壮族自治区民族宗委, 「广西防城港多舉措推進各族青少年交流計劃落地落實」, 2023.
https://www.neac.gov.cn/seac/c103378/202307/1166361.shtml?utm_source=chatgpt.com

10) 「沉寂三年 中越邊城東興重現昔日繁華」, 中國新聞網, 2023.1.9.
https://www.gx.chinanews.com.cn/top/2023-01-09/detail-ihcinhzp1261902.shtml?utm_source=chatgpt.com

11) 張斌, 「建設更爲緊密的中國—東盟命運共同體: 廣西的使命與服務」, 『東南亞縱橫』, 2023, 102쪽.

방성항 등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양문화 기반의 협력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들 지역에서는 해양경제 전략과 연계하여 문화콘텐츠 개발, 생태관광, 해양문화유산 보존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¹²⁾ 문화 영역과 지역 산업, 환경 정책이 연동되는 복합적인 실행 모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해양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역사적 교류의 기억과 문화적 서사가 축적된 상징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서의 문화전략은 국경을 초월한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가며, 아세안과의 다자 협력 속에서 자율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접경성·민족성·해양성이라는 세 범주는 광서의 문화전략이 고정된 문화정체성이나 경계 내 자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적 조건과 문화적 감수성, 협력의 확장성이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입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경성은 국경 지역에서 실질적 교류가 제도화되는 방식과 지역의 자율성을, 민족성은 감정적 유대와 문화적 수용의 기반을, 해양성은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의 외연과 유연한 실천 가능성을 드러내는 분석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광서 문화전략의 작동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중앙 전략과 지역의 실천 역량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3. 접경성과 민족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전략의 실천과 과제

1) 접경지역 기반 문화전략의 형성과 운영 방식

광서의 접경지역은 중국과 아세안의 지리적 인접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

12) 「暢通向海通道 壯大海洋產業—欽州市加快發展向海經濟推動海洋強市建設三年行動計劃(2022—2024年)〉解讀」, 欽州日報, 2022.2.28.

http://gxqz.wenming.cn/szyw/202202/t20220228_7498977.html

러나는 공간이자, 문화전략이 실제로 전개되는 주요 현장이다. 동흥, 빙상(憑祥), 영명(寧明) 등 주요 국경도시는 오랜 민족 간 교류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문화·관광·무역이 결합된 협력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 일상적인 왕래와 문화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구현되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광서 문화전략에서 '접경성'은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가 맞닿는 사회문화적 접촉면을 포괄한다. 다양한 언어와 제도, 생활양식을 지닌 공동체들이 일상 속에서 긴밀하게 맞물리는 접경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조정 능력과 주민의 참여가 문화전략 실현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 이로 인해 접경성은 중앙의 전략 기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구조가 아니라 지역의 실행력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천 기반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베트남 국경관광제(中越邊境旅遊節)'를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동흥시와 베트남 몽카이(Móng Cái)시가 번갈아 주최해 온 이 축제는 양국 지방정부 간 체결된 <문화관광 협력 양해각서(文化旅遊合作諒解備忘錄)>(2016)를 기반으로 예술 공연, 전통의상 퍼레이드, 국경시장 교류, 민속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등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문화전략이 경제협력과 융합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광서정부는 이러한 문화 교류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언어 안내 체계 구축, 민족문화 전시 공간 조성, 관광자원과 연계된 복합 플랫폼 형성 등이 주요 실천 사례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관과 관광센터를 통합한 시범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¹⁴⁾ 이는 접경지역의 문화전략이 지방정부 주도의 제도화를 통해 안

13) 「2024年廣西·憑祥中越邊關旅遊節開幕」, 廣西日報, 2024.1.15.
<http://gx.news.cn/topic2024/pxlyj/index.htm> (검색일: 2025.4.7.)

정성과 지속성을 점차 확보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제도적 틀 외부에서도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 교류의 사례들이 다수 관찰된다. 빙상과 영명 등지에는 중국과 베트남 양국에 뿌리를 둔 장족, 타이(傣)족, 농(農)족 등 여러 민족이 혼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함께 명절을 기념하거나 전통예술을 공유하면서 자생적인 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동흥과 방성항에서는 청소년 예술교류, 민속예술 워크숍,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 ‘변경시장 문화교류회’ 등이 정기적으로 열리며,¹⁵⁾ 지역 공동체와 청년 세대가 문화 교류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전략이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상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문화전략은 경제협력과도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 ‘중국 동흥-베트남 몽가이 국경경제협력구(中國東興-越南芒街跨境經濟合作區)’는 문화, 교육, 방송,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문화가 접경 협력의 핵심 영역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⁶⁾

물론 이러한 협력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행사 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 국경 통제의 불확실성, 양측 도시 간 자원 불균형, 콘텐츠 기획의 일방성 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다. 특히 언어 번역과 해석의 차이는 문화콘텐츠의 수용과 의미 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는 향후 문화전략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광서의 접경지역은 문화전략이 단지 중앙의 정책 기획에 따라 하향식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의 실천이 주도하

14) 廣西壯族自治區文化和旅遊廳, 「廣西壯族自治區文化旅遊產業發展規劃(2021—2025)」, 2022.1.26.

15) 廣西壯族自治區民族宗教事務委員會, 「廣西防城港多舉措推進各族青少年交流計劃落地落實」, 2023.7.25. <https://www.neac.gov.cn/seac/c103378/202307/1166361.shtml>

16) 바이두 검색 : 中國東興-越南芒街跨境經濟合作區. (검색일 : 2025.4.4.)

는 다층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접경성은 이러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촉진 요인이자 문화정책이 지역적 현실에 맞게 실험되고 조정되는 과정의 중심 축이며, 광서의 대아세안 문화전략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민족문화의 전략적 활용과 제도화 시도

광서는 민족문화를 단순한 전통의 보존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외교적 소통과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특히 광서가 보유한 민속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감수성을 담은 상징 자산으로서 공연화와 콘텐츠화, 제도적 플랫폼을 통한 제도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족의 전설적 인물인 유삼저(劉三姐)를 중심으로 한 문화 기획이 있다. 유삼저는 민요를 통해 억압에 저항하고 대중과 소통한 여성 영웅으로 전해지며, 광서 지역의 민속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1961년 제작된 영화 <유삼저>는 그녀의 서사를 대중문화 콘텐츠로 형상화한 대표작으로 광서의 민가(民歌)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도 상영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¹⁷⁾

이후 실경 공연 <인상·유삼저(印象·劉三姐)>는 자연경관과 전통 민요, 현대 무대 기술을 결합하여 유삼저의 이야기를 시각적 서사로 풀어낸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2004년 초연 이후 10여 년간 1,600만 명 이상의 누적 관객을 기록한 이 공연은 지역의 상징을 문화콘텐츠로 전환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광서정부는 이를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유삼저는 중국-아세안 문화

17) 林雨晴·袁方明·臧雨, 「“一帶一路”視野下中國文化在東盟的傳播研究—以劉三姐文化傳播為例」, 『傳播與版權』2021年 第7期, 94쪽.

외교의 대표 이미지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¹⁸⁾

유삼자가 상징 자산의 공연화 사례라면, ‘삼월삼(三月三)’은 공동체 전통을 국제 축제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삼월삼’은 장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산가(山歌)를 부르며 정체성과 연대를 확인하던 전통 명절이다. 광서정부는 이를 ‘광서 삼월삼 장족민요제(廣西‘三月三’族歌圩節)’라는 공식 행사로 재구성하였으며, 문화교류·관광·콘텐츠 산업이 결합된 다기능 축제로 발전시켰다. 2018년에는 싱가포르에 해외 분회장을 설치하고,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중·베 민요 합동 공연을 개최하는 등 삼월삼을 기반으로 한 문화전략은 국경을 넘어선 문화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¹⁹⁾

특히 경족(京族)의 민요 <다리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過橋風吹)>과 베트남 북부의 전통 민요인 관호(Quan họ)²⁰⁾가 합동 무대에 오른 사례는 문화적 유사성과 정서적 공명을 실질적인 문화 교류로 구체화한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전통이 하나의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경험은 광서 민족문화의 상징성이 단지 지역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간 이해를 확장하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징화 및 축제화 기반의 문화 실천은 점차 구조화된 협력체제로 발전해 왔다. 2015년부터 정례화된 ‘중국-아세안 민족문화포럼(中國—東盟民族文化論壇)’은 민족예술단 상호 방문, 전통공예 워크숍,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광서 민족문화의 대외 확산 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 포럼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문화 접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정체성을 문화외교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²¹⁾

18) 林雨晴·袁方明·臧雨, 「“一帶一路”視野下中國文化在東盟的傳播研究—以劉三姐文化傳播爲例」, 『傳播與版權』2021年 第7期, 95쪽.

19) 楊媚, 「“一帶一路”倡議下廣西“三月三”民歌文化的電視傳播實踐與研究」, 『電視指南』, 2020, 62-63쪽.

20) 베트남 북부 박닌성(Bắc Ninh)과 박장성(Bắc Giang)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민요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언어적·선율적 구애(求愛) 민요이다. 2009년 유네스코는 관호 민요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하였다.

21) 嚴雪·徐可欣, 「“一帶一路”背景下廣西民族文化走向東盟的路徑研究」, 『科技傳播』2021年

문화교육기관 또한 광서의 민족문화 전략의 실행 주체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서예술학원(廣西藝術學院)과 광서민족대학(廣西民族大學)은 아세안 국가의 예술기관들과 협력하여 전통무용, 민속음악, 의상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교육과 창작 활동을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광서예술학원이 ‘동남아 예술 협력 고지(高地)’ 조성을 목표로 국제예술주간을 개최하는 등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한 문화외교 실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²²⁾

이처럼 광서의 민족문화 전략은 지역 전통을 감성적 경험과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공연, 축제, 교육, 제도라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유삼저’와 ‘삼월삼’은 각각 상징성과 공동체성을 담지한 문화 자산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는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광서 고유의 문화외교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해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전략의 실천과 과제

1) 광서 해양문화 전략의 형성과 대아세안 교류 기반

광서는 내륙성과 접경성에 더해 해양성까지 겸비한 복합적인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그중에서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배경이 되었다. 고대의 해상교류 경험은 광서 지역에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을 심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러한 역사적 자산은 이후 해양성과 지역 정체성을 결합한 문화 전략으로 재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양문화는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국가 전략과 연계되는 지역 발전의 자원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第15期, 88쪽.

22) 廣西藝術學院, 「2023年東南亞國際藝術周總結報告」, 2023.

광서 해양문화전략의 역사적 기반은 한(漢)대의 합포항(合浦港)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항구는 당시 동남아시아, 인도, 북아프리카, 유럽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던 국제적 거점으로, 북부만과 양자강 유역을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지역사회에 해양 정책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형성하게 했으며, 오늘날에는 문화정책의 상징 자산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특히 북해(北海)는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출발지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양문화유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통해 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²³⁾

광서의 해양문화 전략은 단순한 역사 계승을 넘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의 문화적 실천을 통해 국가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은 광서를 해양문화 교류의 선도 지역으로 명시하였으며,²⁴⁾ 북부만 일대는 아세안과의 문화 및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

북해는 중국 서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지정한 14개 연해 개방도시 가운데 하나로, 해양문화·관광·유산 보호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거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해양문화박람회, 해상실크로드 주제 전시, 아세안과의 공동 문화포럼 등이 매년 개최되며, 문화·외교·관광이 결합된 전략적 실천이 구체적인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북해는 전통적인 통상항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문화외교의 해상 관문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또 다른 핵심 도시인 방성항은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해양도시로서 지리적 전략성과 민족적 연계성을 동시에 보유한 협력 거점이다. 이 도시는 2011년

23) 북해시는 <北海市海上絲綢之路史跡保護條例> 및 <加強北海海上絲綢之路文化遺產保護利用行動方案> 등을 통해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王夢輝, 「‘一帶一路’視域下廣西北部灣海洋文化傳播現狀與創新對策」, 『文化創新比較研究』, 2022, 140-143쪽. 참조.

24) 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2015.3.28. 본 논문에서는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이라 칭함.

부터 ‘해양문화명시(海洋文化名市)’ 전략을 추진하며, 해양 문화산업·관광·교육이 연계된 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국제해상용선축제(國際海上龍舟節)’, ‘경족하절(京族哈節)’²⁵⁾ 등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해양문화 전통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민속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²⁶⁾

전통 해양문화의 요소들은 문화외교의 자산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신앙 영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마조(媽祖) 신앙은 고대 해상 교류를 통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의 해안 공동체에서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해신(海神) 신앙의 확산은 광서 해양문화의 역사성과 초국경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며, 전통 신앙이 문화외교의 상징 자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²⁷⁾

광서의 해양문화 전략은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기반으로 한 제도적 교류 구조로 점차 발전해 왔다. 광서국제문화교류센터(廣西國際文化交流中心)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와 교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북해와 방성항 등 해양도시의 문화기관들 역시 관련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광서가 전통 해양문화 자산을 외교와 문화산업의 접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 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5) 京族哈節 또는 唱哈節이라 불리는 이 축제에서 ‘함’ 혹은 ‘唱함’은 노래 부르기를 의미하며, 광서 京族 거주지에서 유행하는 전통 명절이다. 이 축제는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海神公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경족 사람들은 매년 바닷가로 나아가 해신을 함亭으로 모셔와 공경하며, 사람과 가축이 번성하고 오곡이 풍성하기를 기원한다. 바이두 검색(검색일: 2025.4.5.)

26) 李焰, 「“一帶一路”戰略下廣西加強與東盟國家海洋文化合作的障礙與對策」, 『山東工業技術』, 2017, 297쪽.

27) 李焰, 「“一帶一路”戰略下廣西加強與東盟國家海洋文化合作的障礙與對策」, 『山東工業技術』, 2017, 298쪽.

2) 광서 해양문화 전략의 실행 방식과 과제

광서는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문화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제도적 기반도 점차 확립되어 왔다. 그 중심에는 북부만 지역의 핵심 도시인 북해가 있으며, 이곳은 광서 해양문화 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북해시는 관련 유적의 조사, 보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²⁸⁾ 유물 발굴과 전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고 국제 교류로 연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광서문화관광청 및 광서문물국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 포럼과 국제 전시회를 정례화하였고, 행정기관 간 연계 체계도 점차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광서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교류 방식을 해양문화 전략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해해양박물관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중국-아세안 해양문화주간(中國—東盟海洋文化週)’이 있다. 이 행사는 공연, 전시, 체험 활동,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아세안 국가의 문화기관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²⁹⁾ 일부 전시는 양측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각자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냄으로써 문화교류가 단순한 소개를 넘어 상호 공감과 협력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해시는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하였으며, 일부 작품은 아세안 국가에서 자국어 자막으로 방영되어 지역 간 문화 이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전략은 점차 교육, 학술, 민간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북해에서는 청소년 대상 해양문화캠프, 대학 간 공동연구, 학술 간행물 공동 발간 등

28) 北海市人大常委會, 『北海市海上絲綢之路史跡保護條例』, 2021년 시행.

29) 北海市文化和旅遊局, 『中國—東盟海洋文化週活動報告』, 2023년9월.

30) 金美蘭·王海迪, 「“一帶一路”背景下中國文化在東盟國家的傳播路徑」, 『中國民族教育』 2023年 第3期. 35쪽.

다양한 교육·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지속적인 교류 기반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므라카(Melaka), 베트남 꽝닌(Quảng Ninh) 등과의 문화 협력 협정에 따라 공동 전시, 해양축제, 관광 홍보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³¹⁾ 일부 어업 기술 분야나 민간 해양관광 기업 간의 교류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 틀을 넘어선 실질적인 민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문화 전략은 실행 구조 전반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과제와 함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책과 교류 활동이 북해에 집중되면서 광서 내 다른 해양도시들과의 균형 있는 협력 체계는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흠주, 방성항 등은 주로 경제 및 물류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 교류를 위한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³²⁾ 또한 국가 간 협력 역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기타 아세안 해양국들과의 연계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³³⁾

중국-아세안 간 해양문화 교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점차 축적해 가고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이 존재한다. 특히 상당수의 교류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 장기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주제나 협력 파트너가 해마다 유동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전 조율이나 사후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³⁴⁾

31) 周紅梅, 「向海而興立潮頭 山海相挽共行舟」, 廣西日報, 2023.9.17.

32) 楊祥章, 「我國地方政府參與中國-東盟合作的動力、進程與特點」, 『和平與發展』2018年第4期, 103쪽.

33) 隋譯萱·楊芹芹, 「廣西-東盟經濟關係的現狀、問題與對策研究」, 『中國市場』2024年第27期, 58쪽.

34) 嚴薇·高欣, 「命運共同體背景下中國-東盟博覽會創新發展研究」, 『知識經濟』, 2019, 18쪽.

한편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도 보다 정교한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북해를 비롯한 주요 유적지에서는 관광 개발이 우선시되면서 유산의 역사적 맥락이나 학술적 가치가 축소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전시물 구성에 있어서도 중국 중심의 문명 서사를 강조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아세안 국가의 문화적 독자성과 해석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는 교류의 상호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 참여를 제한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³⁵⁾

광서의 해양문화 전략은 고대 유산을 현대 외교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속에서 일정한 제도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지역 편중, 협력 대상의 제한성, 운영의 비연속성, 문화 서사의 불균형성과 같은 구조적 제약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개별 정책의 보완을 넘어 광서의 대아세안 문화전략 전반을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논문은 광서가 추진해 온 대아세안 문화전략을 접경성, 민족성, 해양성이라는 세 가지 실천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광서의 지역적 특성과 그에 기반한 전략적 역할이 중국-아세안 협력 구조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시도였다. 특히 ‘일대일로’ 구상의 문화전략이 지역 행정과 정책 실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광서는 접경성과 해양성이 중첩된 지정학적 위치에 더해, 다민족 사회가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가 오랜 시간 접촉하며 영향을 주고받아 온 복합적인

35) 金美蘭·黃啓新·雋雨仙, 「東盟旅遊者旅華驅動因素研究—以廣西爲例」, 『廣西社會科學』2023年 第4期, 59쪽.

문화 공간이다. 이러한 조건은 광서를 단순한 전략 수혜지가 아니라 문화전략이 실험되고 제도화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실제로 광서는 ‘중국-아세안 박람회’, 민족문화 축제, 해양문화 전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문화외교의 실천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지역의 조건, 행정 역량, 중앙정부와의 연계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일정한 성과와 함께 구조적 제약도 병존하고 있다.

접경성, 민족성, 해양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광서의 문화전략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접경지역에서는 공연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나, 교류의 범위와 지속성, 그리고 아세안 측의 실질적 참여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었다. 민족문화 전략은 장족의 전통축제를 중심으로 제도화와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일부 행사는 관광 중심의 형식적 재현에 그쳐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양문화 전략은 북해를 중심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구조를 구축했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 협력국 편중, 콘텐츠 활용의 단기성, 서사구조의 비대칭성과 같은 복합적인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처럼 각 전략은 나름의 의미 있는 실천을 축적해 왔지만,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의 재정비와 전략 방향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대일로’ 문화전략이 지역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은 각 지역의 역사적 자원과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며,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 간의 조율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문화 협력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측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교류 기획 단계부터 양측의 공동 참여를 확대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단기적 소비에 그치지 않고, 교육·산업·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방향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사이의 균형 또

한 향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은 광저우의 대아세안 문화전략을 실천 범주별로 분석하며 그 구조와 과제를 살펴보았으나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아세안 측의 정책 대응이나 문화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했으며, 민간 차원의 자율적 교류나 비공식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류가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문화전략에 대한 분석은 정책 평가를 넘어 문화외교가 작동하는 정치적·지역적 조건을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중국의 문화전략을 보다 균형 있게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 廣西壯族自治區文化和旅遊廳, 「廣西壯族自治區文化旅遊產業發展規劃(2021—2025)」, 2022.1.26.
- 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2015.3.28.
- 金美蘭·黃啟新·雋雨仙, 「東盟旅遊者旅華驅動因素研究——以廣西為例」, 『廣西社會科學』2023年第4期.
- 金美蘭·王海迪, 「‘一帶一路’背景下中國文化在東盟國家的傳播路徑」, 『中國民族教育』2023年第3期.
- 雷小華, 「中國—東盟建立對話關係30年: 發展成就、歷史經驗及前景展望」, 『亞太安全與海洋研究』2022年第1期.
- 李焰, 「‘一帶一路’戰略下廣西加強與東盟國家海洋文化合作的障礙與對策」, 『山東工業技術』, 2017.
- 林雨晴·袁方明·臧雨, 「“一帶一路”視野下中國文化在東盟的傳播研究—以劉三姐文化傳播為例」, 『傳播與版權』2021年第7期.
- 隋譯萱·楊芹芹, 「廣西—東盟經濟關係的現狀、問題與對策研究」, 『中國市場』2024年第27期.
- 王夢輝, 「‘一帶一路’視域下廣西北部灣海洋文化傳播現狀與創新對策」, 『文化創新比較研究』, 2022
- 楊媚, 「‘一帶一路’倡議下廣西“三月三”民歌文化的電視傳播實踐與研究」, 『電視指南』, 2020.
- 楊祥章, 「我國地方政府參與中國-東盟合作的動力、進程與特點」, 『和平與發展』2018年第4期.
- 嚴薇·高欣, 「命運共同體背景下中國—東盟博覽會創新發展研究」, 『知識經濟』2019年第24期.
- 張斌, 「建設更為緊密的中國—東盟命運共同體: 廣西的使命與服務」, 『東南亞縱橫』, 202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西部大開發“十四五”實施方案』, 2021.

Abstract

The Cultural Strategy of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toward ASEAN –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in Borderland, Ethnic, and Maritime Contexts

Kwon, Ki 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strategy of the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in its engagement with ASEAN, focusing on three dimensions: borderland interaction, ethnic-based cooperation, and maritime exchange. Positioned at the intersection of China and ASEAN both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Guangxi plays a key role in localiz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rough regional cultural diplomacy. The study analyzes how Guangxi has utilized its geographic proximity, multi-ethnic composition, and historical maritime heritage to develop unique modes of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Drawing on policy documents and case studies, the research frames Guangxi's practices within three thematic domains—borderland platforms, ethnic cultural diplomacy, and maritime heritage initiatives. While these efforts have achieved a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and visibility, limitations remain, including spatial imbalance, limited ASEAN participation, and the episodic nature of many exchange programs. Guangxi's experience offers insight into how regional actors can translate national cultural policies into context-sensitive practice, underscoring the need for future Chinese cultural diplomacy to align strategic intent with local realities.

Key words : Guangxi, ASEAN, Cultural Strategy, Borderland Dynamics, Ethnic Identity, Maritime Cooperation

투 고 일 : 2025. 4. 10. / 심 사 일 : 2025. 4. 15.~ 2025. 5. 15. / 게재확정일 : 2025. 5. 20.